

경기문화재단 연감

도민과 함께하는 10주년 기념사업

전시 프로그램

경기도, 도자예술의 혼 展

경기도 미술관 소장품 展

백남준 참여TV 展

실학과 효 유물 展

온라인 전시 Pop on web

학술 프로그램

「경기도 문화의 21세기를 그리다」 심포지엄

「문화, 어울림과 반울림」 네트워크 파티

문화예술 행사

굿음악제



전시 프로그램



경기도, 도자예술의 혼 展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도자예술의 혼'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4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재단 2층 전시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도자예술의 혼'전은 다큐멘터리 사진 전시로 이상엽, 성남훈, 이규철 등 10여명의 작가들이 작업한 사진 작품 80여점을 '경기도'와 '도자예술의 혼'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각각 구성했다. 사진의 대부분은 도공들의 혼이 흙에 투영되는 모습들을 담아 도자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좋은 도자가 나올 수 있는 경기도의 지리적, 환경적인 배경도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천과 여주, 광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자문화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들의 정신과 그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잘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展

경기도민들에게 우수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고자 경기도미술관의 후원으로 '센스&센서빌리티'를 주제로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전'을 재단 전시실에서 5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아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미술품 관람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로 삶의 이야기를 담은 회화와 드로잉, 판화, 사진, 조각 등 친숙한 작품 위주로 선정했다.

이 전시는 전통적 매체인 먹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심상을 표현한 유근택의 현대 한국화로부터 이등분된 불상을 통해 소통의 단절과 분단의 현실을 다룬 안성금의 작품과 경기 지역을 근거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천성명, 안재홍, 신원재, 임승천 등의 작품을 통해 미술 창작의 진원지로서의 경기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한국현대미술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구림의 새로운 판화 연작, 주도양, 정혜진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담은 사진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의 오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전 전경 |

실학과 효 유물展

〈실학과 효 유물 특별전〉은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학과 효 관련 보물급 미공개 유물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대표적인 소론집안이자 대동법을 주장한 인물로 널리 알려진 포저 조익의 후손들이 가문 소장 유물 일부를 기증키로 하고 포저 조익이 광해군 3년(1611년)에 함경도 안변의 고산도 찰방으로 좌천됐을 때 그린 매화그림인 『묵매도(墨梅圖)』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실학박물관 기공식 때 일부 공개되었던 연암 박지원과 혜강 최한기의 일본 난학자료는 물론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보물급 유물도 전시했다.

이외에도 효 관련 생활유물로서 조선시대 임금이 나라에 공이 많은 70세 이상의 대신에게 하사하던 궤(幾)와 지팡이를 아우르는 궤장도 전시했다. 현존하는 궤장으로는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930호 이경석 궤장이 유일하나, 이번에 전시된 궤장은 제작시기와 받은 이는 알 수 없지만 경기도박물관 소장 외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실물 유물로 보물급에 속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 백남준, TV정원, 1974 |

활용하기 위한 결과물인 〈비디오 신시사이저〉, 기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던 〈TV 정원〉, 인공위성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예술 구조 실험 등을 다룬 비디오 작업들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관람객이 직접 원형 마그네틱을 이용하여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닉슨〉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닉슨〉은 원형 마그네틱 코일을 TV 화면에 가져가면 간섭현상으로 TV 영상이 변조되는 작품이다.

백남준이 TV와 비디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1960-70년대 작업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호평을 샀다.

백남준 참여TV展

재단 창립일인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54일간 경기문화재단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백남준 참여 TV〉전은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백남준 작업에 있어 상호작용의 개념이 어떻게 예술 전략으로 사용되었으며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예술 창작 방식이 어떻게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참여 TV〉, 〈자석 TV〉처럼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작품 제작 방식, TV나 비디오를 단방향적 매체가 아닌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창조적인 매체로



이혜인, 파란대문집 II,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06 |

이 온라인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가 동의하에 출판작의 이미지를 전시기간 중 무제한으로 다운받기와 인쇄하기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예술작품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전시는 11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온라인에서(poPONweb.ggcf.or.kr) 진행돼 2371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30개의 UCC제작물이 게시되었다.

■ 스태프

아트디렉터-서승택(성공회대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
코디네이트-김창조(비평가), 테크니컬디렉터-양아치(웹
아티스트, 아트스페이스 휴 디렉터)

온라인 전시 Pop on web

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저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각이미지를 서비스함으로써 재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

'Pop on Web'은 온라인상에서 미술작품의 이미지를 내려받은 개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활용,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재창조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다.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기존 한국의 팝아트적 경향과 달리 시각예술의 전통에 있는 실험적인 구상 작품을 선정하고 이 작품들

■ 참여작가

김수아(사진), 김주호(조각), 김지은(회화), 노석미(회화), 박진아(회화), 방정아(회화), 민성식(회화), 설충식(조각), 이은우(설치), 이기일(조각), 이혜인(회화), 이흥덕(회화)

■ 워크샵

구분	일시	장소	참가자
작가 워크샵	10.4(목)	영상미디어센터 회의실	참여작가, 스태프 등 15명
사용자 워크샵	10.11(목)	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교육실	온라인 접수자, 참여작가, 강사 등 30여명

학술 프로그램



「경기도 문화의 21세기를 그린다」 심포지엄

6월 26일 재단 3층 다산홀에서 국내 문화정책 관련 저명학자와 문화전문가들을 초청, 『경기도 문화의 21세기를 그린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금까지의 경기도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전망과 대안 등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모두 3부로 나눠 진행된 이 심포지엄은 도정일(경희대 명예교수)의 “경기도 문화의 21세기를 그린다”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부 문화정책에서의 가치갈등과 제2부 경기도 문화정책의 성찰과 전망, 제3부 경기도 문화정책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이란 테마로 구성했다.

「문화, 어울림과 반울림」 네트워크 파티

『문화, 어울림과 반울림』네트워크 파티는 7월 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시 소재 호텔캐슬 영빈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경기문화특별고문 이어령 前문화부장관, 고은 시인, 김주영 소설가, 최인호 소설가, 중앙일보 송필호 사장, 다산연구소 박석무 소장 등 문화계와 언론계 인사를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문화비전 선포를 통해 “경기문화비전은 삶의 가치를 문화예술로 실현

하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경기문화비전의 실현을 위해 5대 분야 30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경기문화비전 5대 분야는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를 비롯, 문화예술 창조력의 신장, 문화창조산업 육성, 문화향유기회와 문화복지 확대,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도시 조성 등이다.

이에 앞서 경기문화특별고문인 이어령 前문화부장관은 ‘Creative class 양성’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창의적 계층(Creative class)이 있어야 한다”며 “창의적 계층 양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뒤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이 Creative class 양성이므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경기문화재단은 창립 10년을 맞아 재단의 상징인 새로운 CI를 공개하기도 했다.

■ 심볼의 의미

경기문화재단의 심볼마크는 하나의 정의로 내릴 수 없는 문화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컬러와 아이콘의 조합으로 시각화한 디자인으로 각각의 아이콘은 각종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 이미지이며, 문화의 상징 아이콘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춤, 비보이

문화를 대표하는 춤과 젊은 문화의 상징인 비보이를 상징화



자연, 나비

자연과 하나되는 문화를 나비를 모티브로 상징화



음악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을 높은음자리표로 상징화



공연, 연극

문화를 대표하는 공연 및 연극을 공연마스크로 상징화



문학, 소설

지적문화를 대표하는 문학 및 소설을 펜과 종이로 상징화

문화예술 행사



굿 음악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굿 음악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창조력에 주목하여 굿음악제를 마련, 대중음악과 창조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했다.

굿은 전통적으로 무당 만신을 위해서

가 아니라 굿을 필요로 하는 절실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절실함을 항상 대변하고 어루만져 주고 품어주는 것이 굿의 책무다. 이에 따라 굿 음악은 당시대의 절 절함을 실어낼 수밖에 없었으며, 당대의 음악이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굿 음악은 다양한 현대음악과 만나며 깊은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굿음악은 전통음악이기도 하고 당대음악이기도 하면서 모두의 절절함을 건드려주는 대중음악으로서의 매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메인행사인 '운맞이 대동굿'은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정통 황해도 굿 양식의 대동놀이판으로 공연양식이 아닌 진짜 굿판을 벌였다. 이날 굿판은 큰

무당 김매물 만신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올림을 시작으로 경기문화재단 집돌이를 포함하는 세경돌이, 상산맞이, 초부정, 칠성, 영정, 타살, 작두, 열세왕, 뽕인영감, 대감, 뒷풀이 순으로 진행됐다.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소리굿 난장'은 △재즈(강태환 - 알토색소폰, 박재천 - 퍼커션, 미연 - 피아노, 강은일 - 해금 외) : 재즈와 씻김굿의 만남, △크라이닝넛(Rock Band) : 기분나면 굿음악 편곡 연주도, △시나위(윤호세, 추정현, 신현식, 신현석 외) : 뽕 짝 시나위, △경기소리(신시예술단 - 이강근, 김명수, 백영춘, 이완수, 이두영) : 칸소네와 팡송을 경기소리창법으로, △정가(강숙현, 정마리, 진나리, 박영기, 홍창남) : 영성을 일깨울 새벽의 울림, △경기도도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보존회 곽승현, 백윤하, 오자환, 목진호, 변남섭, 김철기) : 밤 공기를 뒤흔드는 단아한 삼현육각(三絃六角) 소리, △강릉단오굿(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푸너리에술단 김명광, 김명대 외) : 몸서리쳐지는 타악의 향연, △전라도 씻김굿(채수정 외) : 때로는 재즈 보컬로의 변신, △황해도 굿(김매물만신 외) : 작두타기와 공수받기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사전행사로 9월 1일에 열린 학술판굿(심포지엄)에서는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이 만나는 접점에 대해 학문적인 접근으로 해석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굿음악제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행사	학술판굿(심포지엄)	9.1(토) 10:00~18:30	남산골 한옥마을 박영호 사랑채
메인행사	운맞이 대동굿	9.14(금) 14:00~21:00	경기도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무박2일 소리굿난장	9.15(토)14:00~16(일) 05:00	의정부 시청 앞 잔디마당